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July 30, 2020

In this Issue

I. Law & Regulation

II. Articles

III. FAQ

IV. News

V. Event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6.22,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①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 ②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간간한 잦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재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20.6.23, 금융위원회)

- 6월 23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주요 내용

①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 금지 등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②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 보수위·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위원회 겸직 제한
-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

③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임원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

④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

-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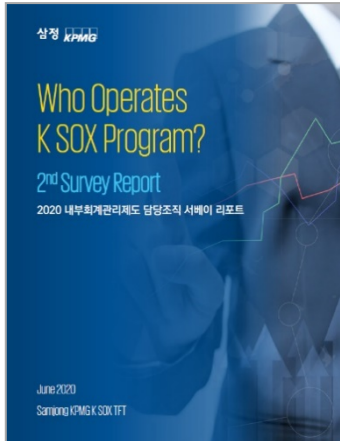
- ▶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Who Operates K SOX Program? – 2nd Survey 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206 개사 중 174 개사(84%)로, 전기 124 개사 중 73 개사(59%) 대비 25%p 증가
- 조사 대상 중 자산 2 조원 이상 126 개사의 담당조직 최고책임자가 CFO 인 경우 78%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자산 2 조원 이상 기업 123 개사 중 75 개사(61%)가 내부회계만을 '전담'하는 팀을 보유, 전기 71 개사 중 39 개사(55%) 대비 6%p 증가
- 자산 2 조원 이상 126 개사 중 감사 원년인 2019 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비중은 67%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은 공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조사,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에 대한 문헌 및 인터뷰, 국내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문분석 등임
- 분석 결과,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 담당 총원 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등록 여부, 근무연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문서화의 수준 및 문서 보관 여부

Q

- 당사는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2020 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임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문서화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 해당 문서들을 보관해야 하는지?

A

-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서화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바, 평가업무 수행 시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에 아래의 내용 등을 논의·검토하였다는 사실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문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에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 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관련 근거

-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삼정 KPMG,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웹 세미나 6/18 개최 [이투데이]**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 공유
 - 그룹 차원에서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투명한 글로벌 경영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논의
- **(전규안의 회계로 세상보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준비와 정착 방안 [뉴스토마토]**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변화: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영향, 모회사 경영진의 책임 증가 등
- 대응 방안: 모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 감독당국은 세부지침 공표 및 감독방향 사전 안내, 외부감사인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 양성 및 감사방법 개발 등
- **감사 의견 불일치 늘어...감독당국·회계기준원 역할 정립 필요 (7/7 감사위원회포럼 2020 제1회 정기포럼) [파이낸셜뉴스]**
 -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이유로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제도적 장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新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언급
 - 감사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 완화 방안으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제시
- **회계경쟁력 '꼴찌' 면했지만...전담인력은 제자리 [서울경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항목에서 한국은 지난 해보다 15단계 상승한 46위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비는 여전히 미흡: 삼정 KPMG의 설문에 따르면 국내 자산 2조 이상 기업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비중이 지난해 55%에서 61%로 늘었지만 동 기간 인력 규모는 3.8명으로 동일

해외 동향

- **유럽 핀테크 상징 와이어카드,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몰락 [이데일리]**
 - 독일의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700억원)에 대한 분식을 자행
 - 와이어카드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금융사기 혐의로 잇따라 체포됨
 - 와이어카드를 10년 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독일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및 의사결정 지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 **Assessing SOX compliance risk in the coronavirus environment [Accounting today]**
 -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재검토해야 할 영역은 중요성 판단, 범위 선정, 리스크 평가 등을 포함
- **Shareholder Alert: Robbins LLP Announces Exela Technologies Inc. (XELA) Accused of Misleading Shareholders [BusinessWire]**
 - XELA 社 2019년 재무제표의 지연제출과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이 재무보고 과정의 내부통제에 미비로 인한 것으로 주주 집단소송 가능성 발생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성 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독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삼성 KPMG
-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20~14:00
- 장 소: 강남파이낸스센터(GFC) 27층 비전(Vision) Room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09:50 ~ 10:20 [30 분]	참가자 등록	
10:20 ~ 10:25 [05 분]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 (삼성 KPMG)	
10:25 ~ 10:40 [15 분]	참가자 소개	사회자
10:40 ~ 11:20 [40 분]	Session I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정비, 조직의 업무 분장과 구성 및 독립성, 전사수준 통제의 설계 등 구축 관련 사항 소개	TBD (삼성 KPMG)
11:20 ~ 11:40 [20 분]	Coffee / Tea Break	
11:40 ~ 12:20 [40 분]	Session II-2 :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검토 사항과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발생, 의견 불일치 시의 대응 방안 안내	TBD (삼성 KPMG)
12:20 ~ 12:35 [15 분]	Q&A	
12:35 ~ 12:40 [05 분]	Closing Remarks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삼성 KPMG)	
12:40 ~ 14:00 [80 분]	오찬	

- 참가신청: 아직 참가신청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E-Learning 내부감사 전문교육

- **이용기간:** 2020년 8월 13일(목) ~ 14일(금)
- **주최:** 한국감사협회(IIA Korea)
- **수강방법**
 - 신청완료 후 이메일로 발송되는 최종 안내문 확인
 - 8월 12일(수) 이메일로 발송되는 '초대장'을 통해 온라인 강의실 입장
- **수강료(부가세 포함) ※ 정회원은 무료**
 - 회 원 사 50,000원 (2인 이상 45,000원 1인기준, 교재파일 포함)
 - 비회원사 70,000원 (2인 이상 63,000원 1인기준, 교재파일 포함)
- **신청·결제:** 7월 30일(목) 오후 5시까지
 - 감사협회 홈페이지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선택
 - 팩스신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Fax) 02-2269-5303
- **입금계좌:** 국민은행 412701-01-159091 (예금주: 한국감사협회)
- **문의:** 교육운영팀 진가영 대리(gyjin@iia Korea.or.kr, 02-3487-1952)
- **내용**

[리스크관리 와 내부감사]

I. 위험관리와 Risk Management Framework

1. Risk 및 Risk management의 개념
2. 위험관리에 대한 Framework 이해
 - COSO ERM
 - ISO 31000

II. 내부통제 및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

1. 내부통제의 개념 및 COSO 모델 구성요소별 통제 실무
2.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3.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체계

III. 위험관리와 내부감사 Case study

1. 내부감사 역량과 리스크관리
2. Risk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Data analytics를 통한 손실, 오용, 부정의 탐지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한상현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임근구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강정구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박성배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양기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socialmedia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